

『시조책』(김해정 소장본)과 새로운 시조 작품에 대하여

구 사 회*

차 례

1. 머리말
2. 서지적 특성
3. 수록 사실의 특성
 - 3.1. 작품 목록
 - 3.2. 사설시조
 - 3.3. 엮시조
 - 3.4. 평시조
4. 맺음말-자료적 가치와 함께

| 국문초록 |

본고는 근대시기에 편집된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자료집인 『시조집』을 발굴하여 소개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전체 작품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특징을 제시하고 작품 발굴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자료집에는 89수의 시조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설시조·엮시조·평시조의 순서로 77수가 있고, 나머지 12수는 뒤섞여 있다. 이것은 『시조책』이 77수로 편집되었다가 추후에 12수가 추가된 것이다. 『시조책』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고시조 형태이고 편집자가 시조 창을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시조 작품마다 곳곳에 ‘三’·‘五’·‘八’ 등의 박자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자료집은 전주에서 편집되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제작자도 전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생각되며, 제작 시기는 1960년으로 추정된다. 이 자료집은 현재 우석대 김해정 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이들 89수의 시조 작품에서 상당수는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으로 판

* 선문대학교

단된다. 사설시조는 39수중에서 12수가 신출 작품이었고 3수는 이본 가치가 있는 변형 작품이었다. 엽시조는 모두 8수가 수록되어 있었는데 그 중의 2수가 신출 작품이었다. 평시조는 42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운 작품은 6수였고 이본 가치가 있는 변형 작품은 2수였다.

사설시조 신출 작품 중에는 일제 침략에 맞섰던 애국지사들의 우국충절을 형상화한 것도 있고, 태극기를 소재로 애국하자는 내용을 담은 것도 있었다. 판소리 <적벽가>의 삼고초려 장면을 형상화한 사설시조도 있고, 신출 작품은 아니었지만 이본 가치가 있는 변형 작품 중에는 판소리 <심청가>의 '범피종류'를 개편하여 만든 것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료집에는 판소리의 노랫말이 시조로 전환되고 있는 작품들이 보이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료집에 수록된 작품 중에는 전주 지역의 풍광을 담고 있는 사설시조 2수와 평시조 1수가 있어서 주목하였다. 이들 작품은 다른 자료집에서 찾을 수 없는 전주팔경을 소재로 형상화한 시조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핵심어 : 사설시조, 엽시조, 반각, 평조, 판소리, 삼고초려, 범피종류, 소상팔경, 태극기, 완산팔경, 전주지역

1. 서론

시조는 고려말기에 이미 정제된 형식을 갖추고 독자적인 시가 양식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로 시조는 길이가 늘어나거나 연이 중첩되는 형태의 변모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창작 계층도 처음엔 사대부계층이었지만 여성과 평민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시조가 지닌 오랜 역사성과 함께 그것이 가창 방식이나 미의식도 달라지고 있었다.

근대 시기에는 양장시조나 사장시조라는 형태적인 실험이 시도되기도 하였고 시조가 계급주의 문학에 대항하는 테제로 작동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시조에게 일어난 변혁은 오랜 세월 동안 전승되던 가창 방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시조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현대시조의 큰 흐름이다.

하지만 지금도 시조를 가곡이나 시조창으로 꾸준히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아야 한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근대시기에도 가창을 전제로 창작되거나 편집된 시조집이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최근에 편찬된 『고시조대전』에는 1728년에 김천택의 『청구영언』(진본)이 편찬된 이래로 지금까지 고시조 문헌 316종이 보고되고 있다.¹⁾ 그런데 『고시조대전』에는 1956년도에 편찬된 『시조집』(평주본)도 있고, 1957년도에 편찬된 『시조선집』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시조 관련 자료는 요즘에도 꾸준히 발굴되고 있다.²⁾ 근래에도 18세기에 편찬된 가집이 나오고 있고 그것과 관련하여 필자도 몇몇 시조 자료를 발굴해 낸 적이 있다.³⁾ 이번에 발굴하여 공개하는 『시조책』은 근대시기에 편집된 고시조 자료집인데 시조창을 위해 편찬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곳에는 89수의 시조 작품이 사설시조·옛시조·평시조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작품은 모두 고시조이고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새로운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체 작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그 특징을 제시하고 작품 발굴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서지적 특성

자료집은 가로 세로 15×18.7cm의 한지로 엮은 서책에 89수의 시조 작품을 세로쓰기로 정서하였다. 자료집에 수록된 시조들은 작품마다 ‘一’·‘二’·‘三’으로 적어서 초·중·종장을 구분하고 있다. 작품들 말미에는 ‘사설’·‘반각’·‘평조’라고 기록하여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이는 작품 길이와 박자, 그리고 창법을 고려

-
- 1)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3수~820면.
 - 2) 하경숙, 「고전시가 작품의 발굴 동향과 전망」, 『문화와 융합』 38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357수~380면.
 - 3) 구사회, 「새로 발굴한 古時調集 『古今名作歌』의 재검토」, 『한국문학연구』 27집, 한국문학연구소, 2004, 205~233면; 구사회, 「새로운 고시조 작품의 발굴과 검토」, 『시조학논총』 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44~71면; 구사회, 「새로운 자료 『시조집(詩調集)』과 시조 작품 15수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45집, 한국시조학회, 2016, 105~124면.

한 분류로 보인다. 여기에서 ‘사설’은 사설시조를, ‘반각’은 半사설시조라고도 하는 엇시조를, ‘평조’는 평시조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서 시조를 삼장으로 편제하여 수록하였다는 것은 가곡의 편가에 대응되는 시조창 나름의 악곡 체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⁴⁾ 그리고 시조 작품마다 구절 사이 곳곳에 ‘三’·‘五’·‘八’ 등의 박자를 표시하고 있다. 이를 보건대 이 자료집은 시조창을 위해 편집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수록 방식은 사설시조·엇시조·평시조의 차례로 적었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사설시조와 평시조를 뒤섞어 수록하고 있다. 게다가 필기도구는 모필과 철필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서 시차를 두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시조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집이 고시조 자료집이지만 제작 시기는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작품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예로써 작품 【10】에서는 민영환의 순국과 관련된 혈죽이나 이토오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이 언급되고 있다. 【89】에서는 우리 민족의 표징인 태극기를 읊고 있다. 그리고 자료집에서는 표기법이 ‘아래 야’나 복자음 등의 철자가 없고 오늘날의 표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게다가 책 표지에 ‘경자 十月一日 1 시조책이라’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1900년 경자년보다는 1960년 경자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자료집은 현재 우석대 국문과 김해정 교수가 소장하고 있고 전주 고서점에 서 수집하였다고 한다. 사설시조인 【29】와 【88】, 평시조인 【62】는 완산팔경을 읊고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자료집에 없었던 전주 관련 시조 작품들이다. 【18】, 【21】, 【41】, 【44】는 다시 논의하겠지만, 판소리의 내용을 소재로 시조 작품으로 창작하거나 변개한 것이다. 이것은 이 자료집이 판소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주 지역과 관련을 맺고 편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주 지역은 완제 시조창의 중심 문화권이였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는 1970년대

4)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으로 미룬다. (권순희, 「시조삼장의 새로운 이해」,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197~215면; 권순희, 「신발굴 시조창 가집 三題」, 『고전과 해석』 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7~33면.)

까지도 마을 단위로 시조창 모임이 적지 않았다. 게다가 많은 시조 작품들에는 전주 지역 사투리가 짙게 배여 있다. 따라서 이런저런 정황을 정리해보면, 이 자료집은 전주 지역에서 편집되어 소통된 것으로 판단된다.⁵⁾

자료집에는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20여수의 새로운 시조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는 전주 지역의 풍광을 담고 있는 작품들도 보인다. 그리고, 『시조책』에는 판소리의 노랫말을 시조로 변용시켜 형상화한 작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에서는 〈적벽가〉의 삼고초려 장면을, 【21】에서는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사설시조로 변용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41】과 【44】은 판소리 〈춘향가〉의 어구를 가져다가 평시조로 만든 사례이다. 이외에도 단가 〈사철가〉의 어구도 시조로 활용되는 사례가 보인다. 이 시조 자료집을 만든 사람은 적어도 판소리에 익숙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자료집은 전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누군가가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3. 수록 사설의 특성

3.1. 작품 목록

(새로운 사설시조 작품 : ●, 사설시조 이본 작품 : ○, 새로운 옛시조 작품 : ■, 옛시조 이본 작품 : □, 새로운 평시조 작품 : ▲, 평시조 이본 작품 : △, 확인 불가 시조 작품 : ×)

번호	초장 어구	형태	근거 자료		평가	비고
			한국시조 대사전	고시조 대전		
1	산청은 험준하고	사설	2071	2353.1		
2	황산곡 도라든지	사설	×	×	●	

5) 20세기에 들어 호남지역에서 동호인 모임이나 풍류방 등에서 시조와 함께 단가와 판소리가 폭넓게 불렸던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권순희, 「신발굴 가집 『音律』의 특성, 『고전과 해석』 17집, 고전문학한문학회, 39~58면).

번호	초장 어구	형태	근거 자료		평가	비고
			한국시조 대사전	고시조 대전		
3	어와청춘 범입네들	사설	×	×	●	
4	소정에 술을실고	사설	×	×	●	
5	구구八十 릴각로는	사설	405	0398.1		
6	춘면을 느진깨여	사설	4201	4979.1		
7	죽장망혜 단표자로	사설	3744	4431.1		
8	책벽강상 수천척	사설	3595	4271.1		
9	명연삼월에 오시마	사설	1474	1640.1		
10	아동방 오박연여	사설	×	×	●	
11	무릉의 흥도화도	사설	1512	1683.1		
12	밤은기피 삼경년되	사설	1648	1837.1	○	중장·종장 다름
13	청여장집고 다발영	사설	4003	4735.1	○	중장 다름
14	오호로 도라드이	사설	2962	3452.1		
15	진국명산 만장봉이	사설	3798	4485.1		
16	소연형낙이 다진커	사설	2413	2707.1		
17	부소산 점은비는	사설	1857	2095.1		
18	남양용중 드러가이	사설	×	×	●	
19	땅은天下 제일강산	사설	×	1500.1		
20	술가치 조흔것을	사설	×	2821.1		
21	범피중유 동덩실	사설	×	1949.1	○	중장 다름
22	새상공명 부운이라	사설	×	2640.1		
23	어와세상 범입네들	사설	×	3195.1		
24	추월강산 엽낙시예	사설	×	×	●	
25	유수갓치 가는세월	사설	×	×	●	
26	상산 조자용을	사설	2131	2444.1		
27	천하명산 오악지중	사설	3965	4688.1		
28	일연삼백 六十일이	사설	3416	3984.1		
29	위봉산 나리는폭예	사설	×	×	●	
30	원문이 월혹하이	사설	3123	3628.1		
31	대장부 허량하야	사설	×	×	●	

번호	초장 어구	형태	근거 자료		평가	비고
			한국시조 대사전	고시조 대전		
32	창외삼경 세우시에	사설	3857	4556.1		
33	바람은 지동치듯	반각	1608	1794.1		
34	오날이야 임이	반각	5659	4093.2		
35	거먹압소 우난소리	반각	×	×	■	
36	녹수청산 찾아가이	반각	×	×	■	
37	강상 무한경일	반각	138	×		
38	산중에 무역일하니	반각	2057	2336.2		
39	바람이 불여온지	반각	1613	1801.1		
40	초당여 고이든 잠	반각	4120	×		
41	기산영수 별건곤에	평조	582	0582.1	△	중장·종장 다름
42	저 건네 일편석이	평조	3585	4238.1		
43	낙양성도 도리화야	평조	×	×	▲	
44	적성의 아침 날은	평조	×	×	▲	
45	운담풍경 근오천의	평조	3110	3611.3		
46	인생빅연이 얼마든	평조	×	×	▲	
47	빅연을가사 인수라	평조	1680	1868.3		
48	풍동죽업은 십만장	평조	4422	5197.1		
49	인의예지 빅을무어	평조	3397	3960.2		
50	한산섬 달발은밤에	평조	4515	5302.1		
51	공산아 적막헌디	평조	372	0358.1		
52	오장원 추야월의	평조	2956	3445.1		
53	양덕맹산 흐르난	평조	2700	3122.1		
54	비는 온다만은	평조	1925	2167.1		
55	노양이 천만산들	평조	910	1064.6		
56	춘광이 九十이라도	평조	4253	4971.5		
57	북두칠성 황야반에	평조	1880	2125.1		
58	달박고 서리친 밤	평조	1092	1211.1		
59	산나 물어보자	평조	2040	4757.4		
60	황하수 막다더이	평조	4691	5506.1		

번호	초장 어구	형태	근거 자료		평가	비고
			한국시조 대사전	고시조 대전		
61	요지의 봄이 드리	평조	3041	3542.1		
62	청황누 늪피어나	평조	×	×	▲	전주 관련 시조
63	백구야 한가허다	평조	1675	1863.3		
64	오백연 도읍지를	평조	2945	3431.1		
65	만수산 만수동에	평조	1406	1559.1		
66	오날도 오날이시고	평조	2920	3403.2		
67	불노초로 비진술을	평조	1904	2147.1		
68	친구가 남일련만	평조	4274	5531.1		
69	녹슈청산 깃픈곳에	평조	903	1059.2		
70	천부 지재하이	평조	3900	4610.1		
71	태산이 평지토록	평조	4340	5125.1		
72	천고 지후하이	평조	×	×	▲	
73	산중에 무역길넌리	평조	2057	2336.1		
74	황산곡 도라드어	평조	4684	5495.1		
75	릭릭이 익이티어	평조	4323	×		
76	세사는 금삼척이요	평조	2286	2632.1		
77	무궁화 무근뿌리	평조	×	1677.1		
78	공도라니 맥밭이요	사설	322	0306.1		
79	음틀갓치 조흔것설	사설	885	×		
80	백두산석은 마도진	평조	1689	1876.3		
81	하늘이 정한배필	평조	×	×	▲	
82	건곤이 유의이하야	평조	204	0221.2		
83	딴장부 세상에나서	평조	1180	1307.1		
84	남훈전 달밭근밤여	평조	757	0891.1	△	중장 다름
85	군자 고행내 하이	사설	458	0472.4		
86	송하에 문동자하이	사설	2408	2779.1		
87	화란 춘성하고	사설	×	×	●	
88	탐승행낙 흥을겨워	사설	×	×	●	
89	어화우리 겨레들아	사설	×	×	●	

3.2. 사설시조

자료집에는 모두 39수의 사설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사설시조는 자료집의 첫 작품부터 32번째 작품까지이고, 자료집 뒷부분에 7수가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뒷부분의 사설시조는 앞에 있는 사설시조와 시차를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2.1. 신출 작품

3.2.1.1. 작품

【2】

- 一. 황산곡 도라든이 증임칠현니 다 모이엿다 영척은 소타고 맹호연 나구탄네 두 목지 보라하고 백낙천번 내려간이 장건은 승사로다.
- 二. 땡동야 너운 들로 와룡강 너머가이 학창이 으흑디로다 팔진도 축지법을 흥장 만 갖마두고 텃몽시만 음는고야 무이협경 다 바리고 탄 : 텃로 내려가이
- 三. 성이티전을 좌우로 버려난디 호걸지웅리요 성현지학이라 기자디지기철연고 금성옥진이 이안인가

【3】

- 一. 어와 청춘 범임네들 이너 한 말 드어보소 허송세월 하지말고 밧갈고 글을 릴 거 수신제가할지어다
- 二. 만고성현 순임금도 역산으 밧설갈라 부모봉향 하옵시며 천하문장 이태빅도 광산에 글을 일거 명전천추 하여쓰이
- 三. 하물며 우리 인성 시호시호부자너라 성현문장 본늘바더 주경야독

【4】

- 一. 소정에 술을 실고 소상강 도라드이 수벽사명 양안티에 불승청원 저 기러기 일 점이점 나라드이 평사낙안이 니안이인가
- 二. 동정호 당도하이 七빅평호 말근물은 상하천광 일식이라 거구세린 어용들은 세을 어더 출몰하고 격안전춘 양삼가에 저역 연기 일어나이 낙조토홍이 더욱 조타
- 三. 은인옥척 낙거너여 고기주고 술을사 명정케 취한 후 달디고 도라오이 강호지

낙이 이뿐인가

【10】

- 一. 아동방 오박연여 민충정 곳은 절기 궤연여 충혈어여 일충죽 푸럿스니 천추고
절 놓하이~있다
- 二. 담디현 안중근는 디의를 세우라고 두류천하 하는 적에 답이빈접은 날 각국 영
사 운집한디 쾌살방수 하엿스니 해동명月 발거이~있다
- 三. 그남은 강우귀 송학선은 창해역사 본을 밧어 오중부거 하여스니 남아의기 이
안닌가

【18】

- 一. 남양용중 드러가이 인물도 빈 : 하고 경개도 절승하다 와룡강 올라보니 산불
고이 수려하고 수불심이 중청이라 원학은 상여하고 송죽은 교취로다
- 二. 초당상 둘러보니 행의도 걸어놋코 대몽를 히롱할제 유헥숙 삼고지은 감격키
로 진세에 출신하여 이십육년 풍진중여 축한기업 이어놋코
- 三. 오장원 가을밤여 장성이 떨어지니 출사미첩 신선사라 장사영웅 누만금을 천
추유한 이아니냐

【24】

- 一. 추월강산 엽낙시에 북방소식 기력기 울고 간밤에 부든 바람 금성이 완전허어
어다
- 二. 고침단금의 상사봉을 홀리쳐 깨여 죽창을 반개하고 밧 : 히 안자쓰이 말이장
공 하운은 허여지고 찬 기운이 새로워어라
- 三. 벽히갈유는 모래무어 섬이 되고 무정방초는 연 : 이 오것마는 임은 어니 모웃
신고

【25】

- 一. 유수갓치 가는 세월 무근 해을 다 보늬고 새희을 마지하이 천중세월 잉중수요
춘만건곤 봉만가라
- 二. 후원초당 화계상여 이화도화 한매화며 목단작약 벌연년티 창전구분 오동 신
엽이 자기허니 화기자생 군자탁이요 춘광선도 기린가라
- 三. 화용月티 옥낭자야 네빛도 조타마년 신춘색이 더욱 조이 잔드려 술부려라 새

봄 맞거

【29】

- 一. 위봉산 나리는 폭예 이내 진금 씻은 후에 다가사후 벗임 맞나 덕진에 연을 캐고 동포귀범에 뜻을 다라 순류로 내려가아~니
- 二. 비 : 정 기려이 진곳 몰나 남고사 종소리에 한벽누 도라드이 푸은 연기 이려나고 남천포 들은 저물역니 밤버쓰라 곤지산 바라보니 기인봉에 달돋는 고오 : 나
- 三. 아마도 비사별 옛도읍 완산팔경을 다 구경 하랑이면 몇 날리 되줄 몰나

【31】

- 一. 대장부 허랑하야 부귀공명 하직하고 삼척동 일필여로 승지강산 구경할제 진시항 고국지허 마리장성 아방궁과 한무제전 추음전 승노반 서인장과 고소대月 멀도읍터를 구경하고
- 二. 반야청산 드러가니 산형수세도 조케이와 층 : 한 절벽상의 낙화로 자리하고 영웅호걸 문장재사 좌우로 버렸는디 봉기인 청학백학 만학천봉의 왕내한다
- 三. 춘주나 마시리라 제일산채 불노초를 가득이 드러노코 순배덕로 권하면서 취지무궁 노래보셔

【87】

- 一. 환란춘성하고 마화방창이라 때조타 범임네들 산천경개 구경가세 죽장망혀 단표자로 철리강산 드러가니 만산홍록은 일연일도 다시피이여
- 二. 춘색을 자랑노라 색 : 히 푸련난디 창송녹죽은 울 : 창 : 하고 기화요초 난만히 디 곳소에 잠기나미 자취업시 날러든다 유생앵비 편 : 금이요 화간점무는 분 : 설이라
- 三. 삼춘가절 조홀시고 도화만발 점 : 흥이라 어주축수 애산춘이여든 무릉도원 이 안이야

【88】

- 一. 탐승행낙 흥을 겨워 풍패고도 유람할제 한벽당 가인연기 비단을 걸어잇고 기린봉 돛는 달은 장부흙금이 활연하다
- 二. 남고사 저문중은 속세몽을 깨우는가 위봉산 나린폭 : 은환을 기우린듯 만경

의 기러기 비 : 정에 나라들제 아득한 애내성은 동포구범이 저기로다
 三. 덕진의 채련곡은 행풍을 띠여있고 다가사후 무사들은 천양을 일삼으니 와산
 팔경이 이아인가

【89】

- 一. 어화 우리 겨레들아 태극기를 우려 : 보세 건삼연 하늘이요 곤삼절 따이 되며
 이허중 해가 되고 감중연 달이로다
- 二. 천지일월 그사이에 뚜렷하다 태극이라 불근 것은 단심이요 푸른 것은 화기로
 다 단심화기 뭉친 것이 우리민족 표증일세
- 三. 단심은 충성이요 화기는 사랑이라 충국애족 하는것이 천부지사명이니 안이
 하지는 못하리라

3.2.1.2. 내용

자료집에는 39수의 사설시조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의 12수가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이다. 한상완과 노영희가 구축하고 동방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사설시조 작품은 이본을 포함하여 631수가 수록되어 있다.⁶⁾ 그리고 김흥규에 의하면 현전하는 사설시조는 약 780수로서 당시까지 수집된 옛시조 5,180수 중에서 약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이다.⁷⁾

이 중에서 독자적인 작품은 250여 수 내외로 보인다. 게다가 근래에 새로 나온 사설시조 작품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조책』에 수록된 이들 새로운 사설시조 12수는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로 가곡창과 달리, 시조창 가집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출 작품이 많은 편이다.

자료집 편제를 보면 작품마다 ‘一’·‘二’·‘三’의 번호를 매겨놓았다. 그런데 이것은 사설시조 초·중·종장의 편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예로서 작품 【2】의 ‘一’에는 ‘황산곡 도라든이 증입칠현니 다 모이엿다 영척은 소타고 맹호연 나구탄네 두목지 보라하고 백낙천번 내려간이 장건은 승사로다’로 기록되어 있다. 그

6) 한상완·노영희, 『인문과학과 예술의 핵심 지식정보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905면 (<http://www.dbmedia.co.kr/product/product>).

7) 김흥규, 『사설시조』(한국고전문학전집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3, 12면.

런데 여기에서 초장은 ‘황산곡 도라든이 중임칠현니 다 모이엿다’까지이고, 나머지는 중장에 들어간다. 이것은 『시조책』의 편찬자가 사설시조의 문학적 형식을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작품 주제를 살펴보면 음주취락이나 강호한정, 소요유람과 연모상사에서부터 단심충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중에는 민충정공이나 안중근과 같은 애국지사들의 우국충절을 형상화하거나, 태극기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도 있다. 판소리 <적벽가>의 삼고초려 장면이나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사설시조로 만든 작품도 보인다. 한편, 12편중에는 전북 전주 지역의 완산팔경을 형상화하는 시조도 2수가 있어서 주목된다.

이들 12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2】는 황산곡과 죽림칠현을 시작으로 영척과 맹호연, 백낙천과 제갈공명 등과 같은 중국의 역대 인물들과 관련된 고사나 이름을 중의적으로 활용하는 사설시조이다. 황산곡은 북송 시대의 시인이었던山谷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활용하여 황산곡이라는 계곡명으로 전파시키고 있다. 영척(甯戚)은 춘추시대 은사로 알려진 인물이었고, 맹호연(孟浩然, 689~740)은 중국 당나라의 시인이었다. ‘백낙천번’은 시조에서 냇가 이름이지만 한편으로 당나라 시인이었던 낙천(樂天) 백거이(白居易, 772~846)에서 나온 말이다. ‘장건은 승사로다’는 한무제 때에 서역에 사신으로 갔던 장건(張騫, ? ~기원전 114)이 뗏목을 타고 은하에 갔었다는 전설을 용사한 것이다. ‘핑동야 너운 들로 와룡강 너머가이 학창이 으흑디로다’의 이하 부분은 중국 삼국시대 촉나라 명신이었던 제갈량(諸葛亮, 181~234)의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 중국의 역대 인물을 원용한 비슷한 평시조 작품이 있는데,⁸⁾ 여기에서는 중국의 역대 인물을 중의적으로 활용하여 음주취락의 내용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런데 위의 사설시조 【2】에서는 대장부의 호기를 형상화한다는 면에서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똑같이 역대 인물을 중의적으로 활용하

8) “黃山谷 도라 드러 李白花를 것거 들고/陶淵明 츠즈리라 五柳村에 드러가니/ 葛巾에 술
 듯는 소리 細雨聲인가 호노라.” (박을수, 『한국고시조대사전』(하), 아세아문화사, 1992,
 1290면)

더라도 형상화 방식에 따라 시조의 주제가 달라진다고 하겠다.

작품 【3】은 주경아독하며 성현의 본을 받아 수신제가하자는 교훈시조이다. 【4】는 소상팔경을 소재로 하고 있는 강호한정의 시조 작품이다. 瀟湘八景은 중국 남방의 동정호로 흘러 들어가는 소수(瀟水)와 상강(瀟江)의 절경을 말한다. 시조 작품에는 소상팔경과 관련된 작품이 많은데 【4】는 그 중에서도 평사낙안·동정추월·어촌낙조를 담고 있다.

【10】은 근대시기 일제 침략에 맞섰던 애국지사들의 우국충절을 형상화한 시조 작품이다. 초장에서는 일제 침략에 맞서 자결한 민중정공의 충혈이 푸른 충죽으로 나와서 절개가 드높다고 말한다. 중장에서는 안중근이 각국 영사들이 구름처럼 모인 가운데 이등박문을 사살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있다. 종장에서는 일제의 사이토(齋藤實) 총독을 저격하려던 강우규(姜宇奎, 1855~1920)와 송학선(宋學先, 1893~1926)의 의기와 충절을 찬양하고 있다.

【18】은 판소리 <적벽가>의 삼고초려 장면을 시조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삼고초려는 중국의 삼국시대에 천하를 두고 쟁패하던 유비가 제갈량을 세 번이나 찾아간 고사를 용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시조 작품에서는 판소리 <적벽가>의 '남양용중(南陽隆中)'에서처럼 제갈량의 모습을 부연과 확장을 통해 구체화하는 특징이 있다. 초장에서는 화자가 남양 용중에 들어가니 제갈량의 인물됨이 뛰어나고 정치도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리고 와룡강에 올라가서 굽어보니 산천이 수려하고 학이 울고 송죽이 교취하다고 말한다. 중장에서는 초당에 옷을 걸어놓고 있던 제갈량이 유비의 삼고초려에 감격하는 모습을 적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장은 두보(杜甫, 712~770)의 <축상(蜀相)>에 나오는 '出師未捷身先死, 長使英雄淚滿襟(출병하여 이기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길이 영웅들의 눈물이 옷깃에 가득 찼네)'라는 시구를 인용하여 제갈량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24】는 임을 그리워하는 戀慕相思의 연정시조이고, 【25】와 【31】은 飲酒醉樂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음주취락의 시조 작품이라도 【25】와 【31】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전자가 이른 봄날의 경치를 완상하며 술에 취한 흥취를 읊고

있다면, 후자는 중국 역대 제왕의 옛터를 구경하다가 돌아와 청산으로 들어가 불로초를 안주로 삼아 봄술을 마신다는 다소 추상적인 성격이 짙다. 【87】은 화창한 봄날에 산천을 逍遙遊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9】와 【88】은 다른 자료집에서 찾을 수 없던 완산팔경을 소재로 형상화한 사설시조 작품이다. 전주는 삼국시대에 完山이라고 불렸다. 지금의 이름으로 불린 것은 신라 경덕왕 15년의 일이다.⁹⁾ 전주팔경은 완산팔경과 함께 쓰이는 명칭으로 그곳의 승경 8곳을 지칭한다. 전주팔경은 ‘기린토월(麒麟吐月)’·‘한벽청연(寒碧晴烟)’·‘남고모종(南固暮鐘)’·‘다가사후(多佳射侯)’·‘덕진채련(德津採蓮)’·‘동포귀범(東浦歸帆)’·‘비비낙안(飛飛落雁)’·‘위봉폭포(威鳳瀑布)’이다. 여기에 ‘건지망월(乾止望月)’과 ‘남천표모(南川漂母)’를 합쳐서 전주십경(全州十景)이라고도 한다.¹⁰⁾ 【29】는 전주십경을, 【88】은 전주팔경을 노래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89】는 국기인 태극기를 소재로 애국하자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태극기의 이치를 언급하면서 그것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읽어내면서 애국애족을 읊고 있다.

3.2.2. 변형 작품

변형 작품은 시조창 사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기존의 사설을 시조창의 연행 현장에서 바꾸어 부른 흔적으로 판단된다.

3.2.2.1. 작품

【12】

- 一. 밤은기퍼 삼경년의 구진비는 현날일제 릴이궁굴 절리궁굴 궁굴 : 다가 잠몬
이워 원수로다
- 二. 아서라 수심장탄 마자하고 벽을 안고 도라루이 그벽이 거울되야 내 눈 압피
어은어은 몽정하고 야속한 입아 정이나 주지말지 이내 가삼에 불리난다
- 三. 루라서 오날밤 이내 모양 그려다가 우리임 계신 곳에 전하여 주리

9)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Ⅳ』 제33권, 「전주부」,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8, 392면.

10) 이철수 편, 『전주야사』, 전주시 관광협회, 1967, 312면.

【13】

- 一. 청여장 잡고 다발영 너머가이 장안사 내외슥 전나무 수처주 심이정 다 어있다
홍문안 만선교 건너 항수문 뱃다 : 으이 범중각 주침각은 진여문에 다어있다
- 二. 법당안 도라드이 대응전 이칭집은 반공에 소나는데 삼세여래 옥광보살 어산
전 명부전과 사성전 비루전을 차려로 참비하니 공산청 풍경 쇠소리 두우성에
석겨난다
- 三. 아마도 춘금강 화봉내 추풍악 동개골은 천하제일 명산이니 그 아이 구경인가

【21】

- 一. 범피중유 등등실 써나갈제 망 : 현 창해상 탕 : 한 물결이라 백빈주 갈마이는
홍요로 날아든다
- 二. 삼상의 기러기는 한수로 날고 용양한 나문소리 어적니 여기면만 곡종인불견
에 슈봉만 푸르렀다 익내성중 만고심은 이내 흥금 자어낸다
- 三. 연파강상사인수라 문노라이 명나수야 굴삼여 어복충훈 그 무량티야

3.2.2.2 내용

자료집에는 이미 알려진 시조이지만 시조 초·중·종장의 일부가 확연히 달라진 이본 가치의 작품이 있다. 모두 3편으로 【12】·【13】·【21】번이다. 이들 작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12】는 깊은 밤에 사랑하는 임을 그리워하면서 잠 못 이루는 모습을 형상화한 戀慕相思類의 시조 작품이다. 『한국시조대사전』의 ‘1648’번이나 『고시조대전』의 ‘1837.1’과는 초장이 일치하지만 중장과 종장에서 확연히 다르다.¹¹⁾ 이들 두 자료집의 중장과 종장에서는 가을밤의 귀뚜라미 소리와 청천의 기러기 울음소리를 통해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자아내고 있다. 반면에 『시조책』에서는 시적 화자가 텅 빈 벽을 외로이 대하는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

【13】은 금강산을 유람하며 그곳의 풍광을 읊고 있는 逍遙遊覽類의 시조 작품이다. 『한국시조대사전』의 ‘4003’번이나 『고시조대전』의 ‘4735.1’과는 초장과

11) 박을수, 『한국시조대사전』(상), 아세아문화사, 1992, 463면; 김홍규·이형대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1835면.

중장에서 일치하지만 종장이 다르다.¹²⁾ 기존의 자료집에서는 초장·중장의 연장선에서 풍광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데 비해, 『시조책』에서는 ‘아마도 춘금강 화봉내 추풍악 동개골은 천하제일 명산이니 그 아이 구경인가’로 초장과 중장에서의 전경화된 풍광을 통해 시적 자아의 내면을 담아내고 있다.

【21】은 판소리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개편하여 사설시조로 만든 것이다.¹³⁾ ‘범피중류’는 <심청가>에서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에 앞서 소상팔경(瀟湘八景)을 유람하는 대목을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범피중류’ 대목을 ‘소상팔경’이라고도 한다. 판소리 명창이 본격적인 판소리를 부르기에 앞서 목을 풀기 위해 이 부분만을 따로 떼어다가 허두가로 부르기도 하였고 한편으로 단가로도 가창되었다.

소상팔경은 중국 동정호 남면의 여덟 명승지를 말하는데,¹⁴⁾ 판소리에서는 바다만 나오면 소상팔경이 나온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춘향가>에서는 춘향이 옥중에서 꿈속에서 유람한 곳으로 나오고, <홍보가>에서는 제비가 흥부에게 박씨 물어다 준 제비노정기에서도 나온다. 그리고 <수궁가>에서는 수궁의 별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육지로 나올 때에도 소상팔경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설시조 ‘범피중류’는 『한국시조대사전』에는 없고, 『고시조대전』에는 ‘1949.1’ 번으로 수록되어 있다.

범피중류 떠나가니 망망한 염해요 탕탕한 물결이라/
백반주 갈매기는 흥료안에 날아들고
삼상의 기러기는 한수로 올어온다/
유량한 남은 소리 어적이언만
곡종인불견하니 수봉만 푸르렀다.¹⁵⁾

12) 박을수, 위의 책, 1101면; 김홍규·이형대 외, 위의 책, 4733면.

13) 소상팔경을 시적 재래로 삼은 것은 시조와 가사 작품의 경우가 판소리보다 앞선다. 조선 중기 이후백의 연시조 <소상팔경>이 있었다(김신중, 「瀟湘八景歌의 관습시적 성격」, 『한국시가문화학회』 5, 한국시가문화학회, 1998, 125수~148면).

14) ‘山市晴嵐’, ‘煙寺晚鍾’, ‘漁村夕照’, ‘遠浦歸帆’, ‘瀟湘夜雨’, ‘平沙落雁’, ‘洞庭秋月’, ‘江天暮雪’. (전경원, 『소상팔경,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64수~78면)

15) 김홍규·이형대 외, 앞의 책, 427면.

반면에 『시조책』에 수록된 사설시조 작품은 다음과 같다.

범피중유 동덩실 썬나갈제 망·현 창해상 탕·한 물결이라 백빈주 갈마이는
 흥요로 날아든다/ 삼상의 기러기는 한수로 날고 용양한 나문소리 어적니 여기연
 만 곡종인불견에 슈봉만 푸르렀다 이내성중 만고심은 이내홍금 자어낸다/ 연파강
 상사인수라 문노라이 명나수야 굴삼여 어복충흔 그무량티야.

이들을 비교해보면, 『고시조대전』과 『시조책』에서 초장의 구분이 다르다. 그리고 전자는 철자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는 철자법을 벗어난 오자가 있고 전라도 방언이 두드러진다. 『고시조대전』에는 『시조책』의 중장 부분에 있는 ‘이내성중 만고심은 이내홍금 자어낸다’가 없다. 뿐만 아니라, 『고시조대전』의 종장인 ‘유량한 남은 소리 어적이언만 곡종인불견하니 수봉만 푸르렀다’는 『시조책』에서 중장으로 편제되어 있다. 『시조책』의 종장은 ‘연파강상사인수라 문노라이 명나수야 굴삼여 어복충흔 그무량티야’라는 구절로 되어 있다. 그런데 『시조책』에만 들어있다고 이들 부분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이들 구절은 판소리 <심청가>의 ‘범피중류’ 대목을 사설시조로 재편한 것이기 때문이다.

3.3. 엇시조

『시조책』을 보면 【1】에서 【32】까지는 작품 말미에 ‘사설’이라 적어놓고, 【33】에서 【40】번까지는 ‘반각’이라고 적고 있다. 반각이란 ‘각’과 ‘반각’의 개념에서 반 장단을 줄여서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¹⁶⁾ 이는 장단의 차원에서 사설시조와 구별되는 엇시조를 지칭한다.

16) 이명옥, 「반각에 관한 연구 -고악보와 고가사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6수~7면.

3.3.1. 신출 작품

3.3.1.1. 작품

【35】

- 一. 거먹 암소 우난 소리에 낮잠자다가 놀리어 깨이
- 二. 머루리난 베을 짜고 자근 아들 글을 익고 어린 손자 숫노리하고 마루아는 술
을 걸르다가 화 : 저르면서 맛보라고눈짓 현~다
- 三. 아마도 농가지락 잇썩인가

【36】

- 一. 녹수청산 찾아가이 유수에 어약하고 수중암상에 거북이 짝을 지어 일광으로
모욕허언다
- 二. 층암절벽의 연~현 흥백화 웃고 섯이 나비는 춤추고 낙 : 장송에 백학이 우
지~고 봉두에 구름 어려 하늘이 거이로오다
- 三. 이곳이 경계 절승하니~ 안이 놀가

3.3.1.2. 작품

『시조책』에는 옛시조에 해당하는 반각 8수가 수록되어 있고, 그 중 2수는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이다. 지금까지의 옛시조에 개념 규정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옛시조는 형태상으로 초·중·종 3장의 어느 한 장이나 두 장이 평시조의 정형보다 약간 길어진 것인데, 종장이 길어진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흔히들 옛시조가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중간 형태라고 말하지만, 옛시조와 사설시조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을뿐더러 연구자들의 견해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최정여와 진동혁은 평시조의 형식에서 어느 한 장이 다소 늘어난 시조로 옛시조로 보았다.¹⁸⁾ 서원섭은 시조가 초·종장은 대체로 평시조의 자수를 유지하고 종장의 자수가 40자까지 길어진 시조를 옛시조로 보았다.¹⁹⁾ 김동욱은

17) 이용백 외, 『국어국문학자료사건』, 한국사전연구사, 1997, 1954면.

18) 최정여, 「시조」, 『국문학개론』, 교학연구사, 1986, 148면; 진동혁, 『고시조문학론』, 형설출판사, 1990, 24면.

초·중장의 初終句와 종장의 2구, 이 다섯 구의 어느 한 구만 定字數 이상인 것으로 보았다.²⁰⁾ 조동일은 엷시조와 사설시조를 보다 명확하게 구별하고자 하였다. 그는 엷시조를 2음보가 세 번 중첩되어 6음보가 나타난 곳이 한 군데만 있는 시조로 보았고, 2음보가 세 번 중첩되어 6음보가 나타난 곳이 두 군데 이상 있거나 2음보가 네 번 중첩되어 8음보가 나타난 곳이 한 군데 이상 있는 시조를 사설시조로 보았다.²¹⁾ 반면에 김흥규는 엷시조와 사설시조 사이의 국부적 변별성보다는 평시조와의 전체적 대비에서 드러나는 형태 및 내용상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보면서 그것들을 한데 묶어 규정하려는 관점을 보였다.²²⁾

자료집 『시조책』에 ‘반각’으로 수록된 일부 작품은 시조의 분류 체계에 따른다면 엷시조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들 작품 중에는 앞서 언급했던 제가의 견해대로라면 사설시조로 편입되는 사례도 생긴다는 것을 밝히고자 함이다. 먼저 【35】는 중장이 늘어난 전형적인 엷시조 작품에 해당한다. 기존의 자료집에서 보이지 않는 고시조이다. 초장에서는 오늘날 사라진 검은 소가 등장하는데 울음소리에 노옹으로 여겨지는 시적 화자는 낮잠에서 깨어난다. 며느리는 길쌈하고 작은 아들은 책을 읽고 손자는 꽃놀이하고 마누라는 술을 거르고 있다. 바쁠 것이 없는 한가로운 농촌의 일상을 읊고 있는 田家閑居類 시조 작품이다. 【36】은 초장과 중장이 늘어난 엷시조인데 사설시조 작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본고에서는 『시조책』 편자의 분류 방식에 따라 엷시조로 편입시켰다. 【36】은 산천경계를 완상하며 아니 놀 수 없다는 人生行樂類의 시조 작품이다.

3.4. 평시조

『시조집』에는 평시조 42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평조’라고 적혀 있다. 여기

19)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1, 44면.

20) 김동욱, 『개정 국문학개설』, 보성문화사, 1983, 80면.

21)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110면.

22) 김흥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48면.

에서 평조라는 것은 시조창의 가락을 말함인데 시가 형태로는 평시조에 해당한다. 종장의 마지막 어구는 시조창으로 부를 때처럼 문장을 완결시키지 않고 매듭짓는 곳이 많다.

3.4.1. 신출 작품

3.4.1.1. 작품

【43】

- 一. 낙양성도 도리화야 비거비래 낙수가요
- 二. 연·세 화상사로되 세·연·인부동이라
- 三. 아마도 화상사 인부동허이 그를 실어

【44】

- 一. 적성의 아침 날은 느진 안개 띄어있고
- 二. 녹수으 저문 붉은 화류동풍 돌넛서라
- 三. 아마도 구심 춘광을 허송하리

【46】

- 一. 인생씩연이 얼마든고 무정세월 양유파라
- 二. 사후에 만반진수라도 불어생전의 일빅쥬라
- 三. 아히야 잔들어 술 부어라 취코놀계

【62】

- 一. 청황누 늪피 올라 호남풍경 바라보이
- 二. 한벽루 청연기 일고 길인봉의 달 뜻는다
- 三. 아히야 잔 잡어 술부어라 완월장취

【72】

- 一. 천고지후하이 초목금수 잘어내고
- 二. 일월리 광휘하야 삼강오륜 발거섯라
- 三. 그중에 성신 자별하여 자손 창성

【81】

- 一. 하늘이 정한배필 오늘이~ 가약리라
- 二. 생신의 시초이요 백복의 근원이라
- 三. 비나이 부귀영화를~ 길이길이

3.4.1.2. 내용

『시조책』에는 모두 42편의 평시조가 수록되어 있고, 그 중 6수는 학계에 보고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이다. 이들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3】에서는 낙양성의 도리화처럼 해마다 피는 꽃은 비슷한데 인간은 해마다 같지 않다고 말한다. 이것은 유한한 인간의 삶을 읊은 것이다. 【44】는 봄날의 풍광을 보면서 화자의 느낀 바를 읊은 感物絃景類의 시조 작품이다. 【46】은 인생 백년이 잠깐이라면서 죽어서 받는 진수성찬보다는 살아서 한 잔 술이 더 낫다는 飲酒醉樂類의 시조 작품이다.

【62】는 사설시조 【29】와 【88】처럼 전주팔경의 모습을 담고 있는 평시조 작품이다. 여기에서는 전주팔경 중에서 한벽루의 맑은 안개인 ‘한벽청연(寒碧晴烟)’과 기린봉의 떠오르는 달을 뜻하는 ‘기린토월(麒麟吐月)’을 담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술을 마시며 취하도록 마신다는 취락적인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 【72】는 삼강오륜이라는 綱常의 도리를 밝히며 태평시대를 기원하고 있다. 【81】은 혼인의 의미를 밝히며 그것이 만복의 근원이라면서 부귀영화가 함께 하기를 축원하는 송축류의 시조 작품이다.

3.4.2. 변형 작품

3.4.2.1. 작품

【41】

- 一. 기산영수 별건곤에 소부허유 몸이 되어
- 二. 영천수 말은 물여 귀를 씻고 누웠스니
- 三. 아마도 사무 한신은 나쁜인가

【84】

- 一. 남훈전 달 발근 밤여 八원팔괘 거나리시고
- 二. 오현금 탄일성여 해오 민지 온혜로다
- 三. 초야에 창생들은 강구연월

3.4.2.2. 내용

『시조책』에 수록된 42편의 평시조 작품 중에는 앞서 언급한 6편의 새로운 작품에 들지는 않더라도 【41】과 【84】의 이본 가치가 있는 작품이 있다. 【41】은 중국 고대의 성군이었던 요(堯)임금 시대에 살았다는 은사인 허유(許由)와 소부(巢父)의 고사를 시적 제재로 하고 있다. 먼저 허유는 요임금이 자기에게 보위를 물려주려고 하자 귀가 더럽혀졌다고 영천(潁川)에 가서 귀를 씻은 후 기산(箕山)으로 들어가서 은거하였다는 인물이다.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영천의 물이 더럽혀졌다고 물고 온 소에게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인물이다. 시적 화자는 이들 허유와 소부를 자신과 일체화시키며 수분지족(守分知足)의 삶을 읊고 있다. 반면에 【84】에서는 태평성세를 노래하며 강구연월(康衢煙月)을 읊고 있다.

4. 맺음말 - 자료적 가치와 함께 -

본고는 새로운 시조 자료집인 『시조집』을 발굴하여 소개하고자 작성한 것이다. 먼저 전체 작품을 목록으로 만들어 특징을 제시하고 작품 발굴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자료집에는 모두 89편의 시조 작품이 사설시조·옛시조·평시조의 순서로 77수가 수록되어 있고, 뒷부분 12수는 뒤섞여 있다. 이것은 자료집이 처음에 77수로 편집되었다가 나중에 12수를 보탬기 때문이다. 『시조집』에 수록된 작품들은 시조창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자료집의 시조 작품마다 구절

사이마다 곳곳에 ‘三’·‘五’·‘八’ 등의 박자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작자는 전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생각되며 제작 시기는 1960년으로 추정하였다. 이 자료집이 근대시기에 만들어진 시조자료집이지만 시조 작품은 모두 고시조 형태이다. 이 자료집은 현재 전주에 살고 있는 우석대 김해정 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자료집에 수록된 89수중의 상당수가 아직 학계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작품으로 판단된다. 사설시조는 전체 39수에서 12수가 신출 작품이었고, 3수는 이본 가치가 있는 변형 작품이었다. 옛시조는 모두 8수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2수가 신출 작품이었다. 마지막으로 평시조는 42수가 수록되어 있었고, 그 중 6수가 신출 작품이었고 2수는 이본 가치가 있는 변형 작품이었다.

사설시조 신출 작품 중에는 【10】처럼 일제 침략에 맞섰던 애국지사들의 우국충절을 형상화한 시조 작품도 있었고, 【89】처럼 태극기를 소재로 애국하자는 내용을 담은 시조 작품도 있었다. 【18】은 판소리 〈적벽가〉의 삼고초려 장면을 형상화한 사설시조로 보이고, 【21】은 새로운 시조 작품은 아니지만 판소리 〈심청가〉의 ‘범피중류’를 개편하여 사설시조로 만든 것이었다. 이외에도 【41】과 【44】처럼 판소리 〈춘향가〉의 어구가 시조 작품로 전환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시조책』에는 전주 지역의 풍광을 담고 있는 새로운 사설시조 2수와 평시조 1수가 있었다. 이들 작품은 다른 시조 자료집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완산팔경을 형상화한 시조 작품들이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논의를 통해 필자는 『시조책』을 전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판소리에도 어느 정도 익숙했던 인물이 편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편집위원회주: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시조책』(김해정 소장본)의 원전 이미지는 본 논문집의 부록(323~337쪽)에 수록했음을 미리 밝힌다.)

참고문헌

1. 자료

『국역신증동국여지승람』 33권,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8)

『시조집』(김해정 소장본)

2. 논저

구사회, 「새로 발굴한 古時調集 『古今名作歌』의 재검토」, 『한국문학연구』 27집, 한국문학연구소, 2004, 205~233면.

구사회, 「새로운 고시조 작품의 발굴과 검토」, 『시조학논총』 36집, 한국시조학회, 2012, 44~71면.

구사회, 「새로운 자료 『시조집(詩調集)』과 시조 작품 15수에 대하여」, 『시조학논총』 45집, 한국시조학회, 2016, 105~124면.

권순희, 「시조삼장의 새로운 이해」, 『시조학논총』 20집, 한국시조학회, 2004, 197~215면.

권순희, 「신발굴 가집 『音律』의 특성」, 『고전과 해석』 17집,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4, 39~58면.

권순희, 「신발굴 시조창 가집 三題」, 『고전과 해석』 21집, 고전문학한문학회, 2016, 7~33면.

김동욱, 『개정 국문학개설』, 보성문화사, 1983.

김신중, 「瀟湘八景歌의 관습시적 성격」, 『한국시가문화학회』 5집, 한국시가문화연구, 1998, 125수~148면.

김홍규, 『사설시조』(한국고전문학전집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3.

김홍규·이형대 외, 『고시조대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2.

김홍규, 『한국문학의 이해』, 민음사, 1986.

박을수, 『한국고시조대사전』, 아세아문화사, 1992.

서원섭, 『시조문학연구』, 형설출판사, 1991.

신경숙 외, 『고시조 문헌 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이명옥, 「반각에 관한 연구 -고악보와 고가사집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응백 외,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소, 1997.
- 이철수 편, 『전주야사』, 전주시 관광협회, 1967.
- 전경원, 『소상팔경, 동아시아의 시와 그림』,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7.
- 조동일, 『한국시가의 전통과 율격』, 한길사, 1982.
- 진동혁, 『고시조문학론』, 형설출판사, 1990.
- 최정여, 「시조」, 『국문학개론』, 교학연구소, 1986.
- 하경숙, 「고전시가 작품의 발굴 동향과 전망」, 『문화와 융합』 38권 5호, 한국문화융합학회.
- 한상완·노영희, 『인문과학과 예술의 핵심 지식정보원』,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Abstract |

A study on “Sijo Book”(the collection of Kim Hae-jeong) and the new Sijo works

Gu, Sa-whae

This study is to discover and introduce “Sijo Book” a new collection which seemed to be edited in the modern period. It contains 89 Sijo works. It seems to be produced for Sijochang by the producer. The producer seems to be the person engaged in the activities in Jeonju and it is estimated to have been made in 1960. While this collection is made in modern times, it is all in the form of an old Sijo. The current collection is owned by Professor Kim Hae-jeong of Woosuk University.

Many of these 89 Sijo works are new works that were not introduced to academic circle yet. There are 12 new works out of 39 works of Saseol Sijo, and 3 works are worthy of different versions. There are 8 Eot Sijo works, 2 of which are new. Finally, there are total 42 Pyeong Sijo works, 6 of which are new works and 2 of which have value of different version.

Among the new works, some contains the patriotic loyalty of the patriotic personnel and one is on the the national flag “Taegukki.” There is also Samgochoryeo of <Jeokbyeokga> and revised Saseol Sijo of ‘Beompijeungryu’ of Pansori “Simcheongga.’ It is noteworthy that there are 2 Saseol Sijo works and 1 Pyeong Sijo on the scenery of Jeonju area. These works are the works that embodied 8 great sceneries of Wansan, which is not found in other books.

Key words : Saseol Sijo, Eot Sijo, bangak, pyungjo, pansori, Samgochoryeo, Beompijeungryu, sosangpalgyeong, Taegukki, Wansanpalgyeong, Jeonju province

투고일 : 2016년 12월 16일 심사기간 : 2017년 1월 23일 ~ 2월 12일 게재확정일 : 2월 13일

